

* 할렐루야 우리는 계속해서 로마서 4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시간에는, 아브라함의 구원의 확신과 다윗의 확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해 좀 더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 본문을 거듭 묵상해보면

9-12절사이에 <할례와 무할례>라는 단어가 6쌍이나 나오고, 13-17절에는 <믿음과 율법>이라는 단어가, 4쌍이 등장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간이해**(時間理解)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뭐가 먼저 왔고, 뭐가 나중에 온 것인가> 하는 것을 이해해야 의문이 풀리는 것입니다.

드라마에서, 탐정이나 경찰들이 사건을 해결할 때 보면, 일어난 사건과 관련된 단편들을, 시간순서로 진열해 놓고 보면서, 사건의 단서들이 풀리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 시간**에 대한 관점이 있습니다.

1) 아브라함의 생애 안에서 일어난 믿음의 사건들(두 가지)을 시간별로 보는 것과

2) 더 넓게,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믿음>과 <율법>의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런 시간대의 비교는 <구원론>과 <의인론> <섭리론>에 매우 중요한 문제들을 우리에게 제 공함으로 우리의 신앙체계를 든든하게 해 주게 됩니다.

<역사를 알고, 역사에서 배워야 한다는 것>, <역사는 반복된다>는 명제(命題)는 옳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저자들이 보는 역사적 안목을 배워야 합니다. 그 때 비로서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고, 진정한 신학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브라함의 생애는 하나의 신앙적, 신학적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I. 아브라함의 생애의 두 가지 시간대.

1. 창세기 15장 과 창세기 17장

창세기 15:6절은, 지난시간에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언제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하는 문제의 중심입니다.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것은 믿음의 의(義)의 핵심주제였습니다. 행위구원(行爲救援)이 아니라, 믿음의 구원이요, 믿음으로 의롭다하심을 얻는, 우리의 구원관의 핵심(核心)교리가 됩니다.

이 사건은, 나이로 하면 가나안에 온지 10년차 즉 85세때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85세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창세기 15장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시간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 99세에 일어납니다. 그게 창세기 17장의 사건입니다.

17장을 보기 전, 먼저 15장의 사건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15:4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5.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

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6.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 여기서 우리는 상속자(相續者)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아들이 중요한 이유는 그 아들이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7.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所有)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 낸 여호와니라. 8.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 구원받았다고, 모든 질문이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롭다고 인정하셨다고, 질문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은 이런 질문을, 하나님은 불경(不敬)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9.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삼 년 된 암소와 삼 년 된 암염소와 삼 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10. 아브람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개진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11. 술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람이 쫓았더라. 12. 해 질 때에, 아브람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13.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사백 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14.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15.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시될 것이요 16. 네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17. 해가 저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火爐)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개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18.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言約)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19.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갓몬 족속과 20.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21.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구체적(具體的)입니다. 3번에 걸쳐, 말씀하시는데,

1) 3년된, <암소, 암염소, 숫양>과 <산비둘기, 집비둘기새끼>의 제사(예배)를 요청하십니다.

2) 이 지시가 실행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구체적인 미래를 자세하게 제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고난의 과정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것은 400년동안 이방의 객으로 고생할 것이라는 고지입니다. 고난후 성취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3) 하나님이 자기사 주실 땅에 대한 그림을 그려주시기도 합니다.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라고 경계선(境界線)도 그어주시고, 10족속의 땅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단계적으로 인도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이 견고해질 때, 그리고 환경(環境)을 통해서 그 모든 축복을 감당할 만한 준비가 되었을 때에, 그 축복이 성취(成就)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연단(鉛丹 refine)하고, 훈련(訓練)하시는 것입니다. 연단이란, 불순물을 걸러 내고 더 순수한 금속을 만들기 위한 과정을 말하지만(욥 28:1; 사 1:25 참고), 때로는 몸과 마음을 단련시켜 굳세게 닦는다는 의미로도 쓰이는 용어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인도하시며 언약(言約), 약속(約束)을 주십니다.

이제 17장입니다. 17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 아브람이 **구십구 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

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完全)하라 2. 내가 내 언약(言約)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蕃盛)하게 하리라 하시니 3. **아브람이 었드렸더니**, (왜 아브라함은 아무 말 못하고 었드렸을까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늦게(99세때에) 나타나신 것일까요? 85세에 나타나셨으면, 바로 아들을 주시지 말입니다. 이렇게 늦게 응답하시면, 배겨날 인간(人間)이 있을까요? 우리는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탓보다는, 아브라함 탓이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창세기 16장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창16장은 총 16절입니다. 1,16절만보면 압니다.

1절을 보면, “아브람의 아내 사래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16절을 보면,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람이 팔십육 세였더라.**”

여기서, 우리가 어떤 사건을 볼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사래의 이집트여종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은 사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한 의미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보면, <너는 불완전하게 행동하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롭다고까지 하였는데, 그는 곧,(이게 중요합니다. 같은 해입니다) 하갈을 취하는 행동을 함으로 하나님의 전능함을 부정했다는 이야기로 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13년을 더 기다리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육체적인 한계연령인 99세가 되자, 하나님은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불순종 불신앙, 섣부른 행동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연시킨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생애에도 이것은 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셨습니다. 인간은 변하나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하여 99세때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선취적인 분이십니다. 17:3절 마지막에..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4 보라 내 언약이 나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5.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6. 내가 너로 심히 번성(蕃盛)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7.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나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8. 내가 나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 하나님은 여기서 <내 언약>(4, 7)이라고 하시고 그것을 <영원한 언약,7>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인간의 언약과 하나님의 언약의 차이점입니다. 인간은 그것을 온전하게 못지켜도 하나님은 그것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번에는 아브라함에게 두가지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는 이름을 바꾸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9-1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9.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10.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11.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창 17:9-11)

하나님은 이 약속을 믿는 표징으로 할례(割禮)라는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할례(circumcision)란 ‘주위를 둥글게 자르다’의 뜻입니다. 즉 남성 생식기의 머리 부분을 덮고 있는 표피(表皮 Foreskin)를 베어 내는 것을 말하며, 당연히 피가 흐르게 될 것입니다.

일종의 **피의 언약**인 셈입니다. 11.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 니라.**" (창 17:11) 하나님은 자신과의 언약을 몸에 새기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롬4:1-8절에서 <이신득의의 행복>을 말하던 사도는, 왜, 갑자기 9절이하에서 **할례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요?

그 이유는 '할례주의자' '할례구원론자'들 때문입니다.

'유대율법주의자'들은, 할례(割禮)야 말로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의 차이라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사도바울의 대답은 무엇이였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사도는 **이신득의와 할례를 비교합니다.** 그는 창15장과 창17장을 비교합니다.

15장은 **이신득의의 장**이요, 17장은 **할례장**입니다. 사도는 묻습니다.

오늘의 본문 4:9-11절에 **"9. 그러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나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나.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10. 그러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나 무할례시나.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11.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롬4:9-11상)"**

사도의 요점(要點)은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받기 이전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할례는 구원의 조건으로 받는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할례는 그 '언약의 표증'이라는 것입니다.

2. 믿음과 율법 (롬4:13-17)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시간프레임은 **창세기 15장과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이것은 창15장과 17장보다 겹이 넓은 시간 프레임입니다. 창세기 15장은 BC 2000년이야기이고, 출애굽기 20장은 BC 1500년이니, 약 50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바울은 시대를 넓게 보는 매우 날카로운 통찰력(通察力)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비교를 통해, 바울이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이전에, 믿음으로 의(義)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율법이후에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시기 500년 전에 먼저 믿음의 의(義)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점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3.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言約)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14.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15.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16.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17.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 부분을 읽으면서 뭘 족보이야기나 하면서 혼란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만, 이 족보가 나와 상관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정신이 확 들것입니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아브라함이 나의 조상될 수 있다는 말이!" 흥미롭지 않습니까? 땅기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의 13, 16절에 상속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13.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의 특성(特性)과 그, 범위(範圍)의 확대성(廓大性)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하셨던 창15:4절의 <상속자>라는 말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상속자가 되듯이, 우리도 하늘나라 상속자다>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상속자이듯,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나라 상속자가 된다는 놀랄만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8: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Now if we are children, then we are **heirs**--heirs of God and **co-heirs** with Christ,) 이 말씀은 요한복음 1:12절과 통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요한1:12절에서 약속받은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녀에게는 상속(相續)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과 관련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찌면 바울의 이 주장은, 유대인들에게는 몰매 맞을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경적 사실에 기반을 두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성격은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한 약속(約束)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3:9절에서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데 손을 들어주는 말씀입니다.

13-19절에서 율법과 믿음을 비교합니다.

<율법과 믿음>의 쌍으로된 이야기를 5번이나 반복합니다.

이것은 사도가 우리에게 <율법과 믿음>을 시간순서로 비교해보라는 것입니다.

흔히 성경을 구분할 때 <구약은 율법, 신약은 은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만, 사실 그것은, 완전하게 순서가 바뀐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비교해 보면 답이 나온단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믿음이 있고, 출애굽기 20장에 율법(律法)이 있습니다. 시간상으로는 500년이 차이가 납니다.

바울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16.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17.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 상속자가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된다. 이게 은혜다. 상속자가 되는 것은 인종에 달려있지 않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믿음에 속하기만 하면 된다. 그런의미에서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의 조상이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이시다.

지금까지의 말씀을 정리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CASE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1)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인해, 구원받고 의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신득의(以信得義)의 신앙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만의 경우가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의 경우가 될 수 있다고, 바울사도는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롬4:23-24)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과 우리의 믿음의 차이점을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은 <밤하늘의 별을 보고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福音)이었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하기 위해 부활하신 것>이 복음(福音)입니다. 그게 롬4:25절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죽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2)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롬3:19-20절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20.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구원은 율법 이전에 주어진 것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믿음으로 의를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아브라함에게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3)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성경의 모든 약속이 우리들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성경을, 유대인의 책으로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책이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족보도 유대인들만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는 모든 이방인의 족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사도의 말씀입니다. “10.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9.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10,9절)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의 7가지 새로운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새로운 계보와 정체성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브라함이라는 귀한 인물(人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가르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머리에서, 행위구원론(行爲救援論)을 제거(除去)하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는 길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福音)을 믿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믿고, 확신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늘나라 상속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기업이 없다할지라도, 하늘나라가 우리의 기업이라는 확신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